

## 美 교회들, 생존이 아닌 '선교를 위해' 합병한다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합병 전보다 교인수 14% 늘기도

미국 교회들 사이에서 흔히들 이뤄져 온 합병의 목적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쇠퇴해가는 교회들이 '생존'을 위해 합병을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더 큰 '선교의 기회'를 위해서로 합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크리스챤리티투데이는 리더십 네트워크(Leadership Network)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선교적 교회 합병(missional church merger)'이 미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트렌드가 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전체의

2%에 달하는 교회들이 이같은 이유에서 합병했으며, 2013년경에는 그 비율이 5%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예로, 지난 해 피닉스의 이스트밸리 바이블 처치(East Valley Bible Church)와 프랙시스 처치(Praxis Church)는 각각 시에서 유명한 메가처치와 한창 성장 중인 떠오르는 교회였지만, 피닉스 시를 더욱 효율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서로 합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탄생한 리렘프션 처치(Redemption Church)는 올해 초에 는 세번째 교회까지 그들의 파트너

로 받아들여면서 더욱 성장해 총 4개의 캠퍼스에 출석교인 수가 4,800여 명이 됐다. 이는 세 교회가 합병하기 전보다 14%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표 목사인 저스틴 앤더슨 목사는 "우리는 에베소교회나 빌립보교회처럼 하나의 도시 교회를 갖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며 피닉스의 교회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 함께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쇠퇴해가는 교회들이 존속을 위해 합병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후에도 쇠퇴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선교를 위해 합병한 교회

들은 합병 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병합의 공식은 '1+1=10', 즉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합병은 선교를 위해서라면 교회의 규모나 교단, 민족성과 관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해 말 미수리의 한 아프리카인 교회와 백인 교회는 한 백인 교회와 합병했다. 백인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쓴다는 데 동의도 이뤄졌다.

현재까지는 선교적 합병은 주로 멀티 사이트 교회들 간에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미국 교회의 20%에 달하는 멀티 사이트 교회들

대부분은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다. 다시 말해 선교를 위한 합병은 건강하게 성장 중인 교회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점차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교세 전체나 감소하고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선교적 합병은 이외에도 정체성의 확대와, 신뢰성 증대, 재정적 효율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합병하려는 교회들 간의 차이 극복이라는 도전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07년 말 다른 교회와 합병하면서 상당한 성장을 경험한 미네애플리스 이글 브룩 처치(Eagle Brook Church)의 대표 목사인 스타트 앤더슨 목사는 "합병은 잘 진행될 때 매우 좋은 선택이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에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만 받아들이는 듯하다. 전혀 다른 두 문화를 섞느니 새로운 교회를 위해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며 합병이라는 것은 선교를 위해 감수하는 도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순현정 기자  
hjson@chtoday.co.kr

## 남가주동신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부흥회 개최

김권수 목사, "구원은 영접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에서 2일부터 4일까지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부흥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서울동신교회 김권수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김권수 목사는 첫째날 "현세와 내세에 유

익한 필수과목"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말씀하며 믿음에 대해 강조했다.

김 목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나를 받게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

에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직도 한국교회 교인 60% 정도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다."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김 목사는 "보통 천국은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간다고 하고, 지옥은 악하고 나쁜 사람이 간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얼마나 선행을 베풀어야 천국에 갈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영국에서 공부할 때 불교학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은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베풀어야 간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구원은, 신앙생활을 시작해 제자 된 삶을 시작했으면, 예수님을 중심삼고 사는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한가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멩 기자

## 미기총 대각성 운동, 전 미주로...

대각성 기도회 확산 컨퍼런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송정명 대표회장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이하 미기총,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사진)가 남가주 한인 교회에 불고 있는 대각성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 전체 "대각성 기도회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9월 20일(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소재 베델한인교회를 컨퍼런스 장소로 1박 2일 간 이뤄지는 이 컨퍼런스는 미기총이 주최하고,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 등이 후원한다. 송정명 미기총 대표회장은 "세계적으로 교회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력의 무서운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위기, 미국과 한국의 혼란과 좌초, 교회와

지도자들의 영적 리더십 침체 등 지금이야말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대각성의 때"라며 "이미 남가주 일대에 베델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라카나교회 등에서 대각성 기도운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불타고 있다.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주체하지 못해 먼저 각 도시에 기도의 불이 확산될 원해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1박 2일 간 이뤄지는 이번 대각성 기도회 컨퍼런스는 "개회예배와 만남, 세계상황과 대각성 기도운동 필요를 나누는 전체토론, 북미주교회협의회 회장단의 회개 통회 대각성 기도회, 북미주 각 도시별 대각성 기도회의 불길 점화와 전략 토론, 각 도시별 대각성 불길 점화 타임테이블 토론, 폐회예배"로 이뤄진다.

권나라 기자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  
**213-386-5500**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전인 치유 사명은 기도와 말씀, 의술, 건강교육을 통하여!"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신입생 모집**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편입생 모집**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 물리 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갱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트레스성 분노,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예약 전화 : 562-965-5112**



# “은혜에 대한 보답은 신앙을 자손에게 전승하는 것”

월서연합감리교회, 조영진 감리사 초청 부흥회 개최

님이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 된다. 꿈은 무슨 의미인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뜻이 있다. 나로 인해 하늘의 복을 누리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길 수 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무엇을 바꿀까야 하나.”라고 물으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야 한다. 더 귀한 인생은 하늘이 주는 사명을 따라

는 것.”이라고 했다. 조 감리사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눈이 찢어져도 괜찮다. 하나님의 자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태평양을 건너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감리사는 탈무드를 예로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논의를 했다. 금과 보석을 모아

서 하나님께 드리자,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논의한 끝에 미래를 드리자, 고 했다. 미래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신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줘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물려줘서 후손들이 믿음의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다.” 토마스 맵 기자

#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을까? 있다!

선 미니스트리, '감사학교' 오는 24일부터 8주 동안

고단한 이민자의 삶을 위로하는 취지로 선 미니스트리(SON Ministry) 주관 하에 '감사학교'가 열린다. 오는 24일부터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선 미니스트리에서 열리는 감사학교 감사에는 김경환 선교사, John Kim목사, Sue Kim목사, 진미에 가정상담전문가(주정부인가 가정상담사)가 나설 예정이다. 선 미니스트리 관계자는 “감사를 잊은 그대, 감사를 도둑맞은 그대, 감사가 실종된 신앙과 가정생활, 그대를 예수님 사랑으로 초청한다.”라며 “선교사역 26년, 고난과 역경과 실패,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고 배우게 하신 감사신앙, 감사로 인한 축복, 결정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감사기정 만들기 - 감사기정 만들기 - 부부관계(4회) △감사자신 만들기 - 건전한 자아상 (2회) △감사자녀 만들기 - 진미에, 자녀와 상담기술 (2회) △감사이민 만들기 - Kingdom Dream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감사마음 만들기 - 성경적 감사, 오기와 욕망, 감사마음 밭, 감사기도 △감사영성 만들기 - 영적독해결하기, 영적자음, 찬양회복 △감사일터 만들기 - 인간관계, 직업전문성, 사업현장에서 감사 △감사선교 만들기 - 선교의 기초, 부모선교사, 가정선교사, 열방선교사 등이 마련됐다. 등록비는 150불이며, 선교사들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 714-522-7766(선미니스트리 감사학교) 토마스 맵 기자

# 목사 사칭 수백만달러 투자 사기 한인 기소

한국 대형교회 목사 피습사건 용의자, 도피 중 사기혐의 압송

목회자 혹은 선교사로 사칭하며 수백만 달러의 투자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최근 미 연방 당국(ICE)에 의해 기소됐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2일 보도했다.

최광용(대니얼 최, 68세)이란 이 남성은 2000년 한국 총현교회에서 발생한 목사 피습사건의 공모자로 경찰 수배를 받아 미국으로 도피,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와 LA등지에서 지내며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피생활 중 최 씨는 목사나 선교사 혹은 연방 정보당국 요원을 사칭하며 백악관에 기념품을 공급한다는 사업 명목으로 한인들에게 접근, 분기마다 3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해 수백만 달러를 빼돌렸다. 연방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트리니티 캘리포니아 신학교(Trinity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국제 기독교 선교센터(International Christian Mission Center)' '선민무역회사(Sunmin Trading Inc.)' 단체의 대표로 활동했으며, '선민무역회사'에 100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매 3개월

마다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ICE는 최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한 한인여성으로부터 총 131만95달러의 투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 최소 12명 이상 투자자들에게 263만 달러 상당의 돈을 끌어모은 증거를 확보했다. 최 씨는 2005년 한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 미국의 협조 아래 공식 인

도됐으며, 현재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뒤늦게 최 씨의 도피 생활 당시 행적을 수사하던 미 검찰은 최 씨가 목사, 선교사, CIA, 미 연방수사국 요원 등을 사칭해 투자사기를 펼친 사실을 발견하고 기소했

다. 현재 최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역으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고 형을 마친 후 신병을 인도받아 미국으로 재입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권나라 기자

## LA ORT 취업전문 직업대학

[연방정부 학력공인, 이민국 SEVIS 인정]

▶ 영어 과점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자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자격증 보조금 지급  
고수입 일한 직업 추천

1. 메디칼오피스메니지먼트학사취득, 건축설계, 의사보조, 약사보조
2. 비즈니스메니지먼트학사취득, 아카운팅 AAS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3. 유학생 I-20발급, 방문비자 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가능
4. 유학생은 LAORT 졸업후 워크퍼미, 소살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상담: 플리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 556-5386  
Cell. (213) 434-8128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 VCS, 멕시코 아이캠프 위한 후원의 밤 열려 오는 12월, LA타운 내 아이캠프 개최 예정

국제의료구조단체 비전케어서비스(VCS) 미주서부(이사장 알렉스 장)가 지난 8월 31일 오후 6시 월서아트센터에서 멕시코 아이캠프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VCS는 미주서부는 오는 10월 2일부터 8일까지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 등의 안과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에 창립된 VCS 미주서부가 처음으로 주관하여 진행하는 아이캠프(Eye Camp)는 2002년 한국에서 시작된 VCS 의료구조사역의 100회 차가 되는 뜻 깊은 캠프로 한국과 미주 전 지역에서 모인 30여명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는 이창영 글렌데일 도시계획위원장의 사회로 VCS의 지난 활동을 소개하며, 지난 7월에 VCS 미주법인에 주관한 아프리카 가나 아이캠프에 참가한 자원봉사자의 보고 및 멕시코 캠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날 행사에는 카르멘 트루타니치 LA시검사업장, 최용진 LA부총영사, 나성현인교회 김성민 목사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VCS 미주서부는 내년 총 2회의 캠프를 직접 주관할 예정이며, 미주법인과 함께 총 6회의 중남미와 아프리카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에 남가주 지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백내장 등 안질환에 고통받고 있는 한인들과 중남미 출신 이민자

이날 행사에는 카르멘 트루타니치 LA시검사업장, 최용진 LA부총영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들을 위해 LA아이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알렉스 장 VCS 미주서부 이사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다”며 한인커뮤니티의 아이캠프를 위한 후원 참여를 요청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캠프 참여를 호소했다. 토마스 맵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광고국장 : 이민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이력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 한가위 아이토크비비로 안부 전하세요~

요금은 DOWN 기쁨은 UP

새고객 보상프로그램\*  
비싼 AT&T, Verizon 집전화 아직도 쓰고 계세요?  
지금 아이토크비비로 바꾸면,  
최대 \$100 드려요!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2.2902

30일 환불 보장!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신 모든 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전화회사의 요금청구서를 확인해보세요, 사용을 안하셔도 매월 \$20이 초과 됩니다.)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전화카드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국제 전화를 거시는 분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24.99/월 (기타 수수료 별도)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 통화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070 전호 없이도! 한국 번호 제공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 없이도!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가능(매월 500분 제공)

요금	iTalkBB 글로벌플랜	AT&T Complete Choice Enhanced	Verizon Freedom Value
월간 요금	\$24.99	\$26.00	\$52.99
미국 내 로컬 장거리	무제한	장거리 추가요금	무제한
한국, 중국, 일본 무선전화	무제한	불포함	불포함
한국 로밍번호 제공	070 번호 제공	불가능	불가능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서비스	월 500분 제공	불가능	불가능
발도 부가금(수수료 등)	없음	있음	있음
보상프로그램	\$70	없음	없음
12개월 총 금액	\$229.98(수수료 포함)	\$312.00(수수료 별도)	\$635.88(수수료 별도)

지금 사용중인 집전화 요금, 아이토크비비와 비교해 보세요!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에서 신규 아이토크비비를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 703.348.7544  
홍보자료 요청 02-703-0904

# 소셜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새로운 논쟁 중

[기고]

## “이제는 미주 한인이 미국을 살릴 때입니다”

### 교사 학생 간 도움 안돼 vs 유익한 의사소통의 도구

뉴스 소식통으로서 인터넷 역할이 텔레비전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학교 교사들에게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는 반면 교회는 이것들을 선교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소셜 사이트 사용을 한때 반대했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데이턴 공립학교의 교사들은 더 이상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과 교재를 나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데이턴의 교사와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됐다. 미소리주의 새로운 법은 교사가 이 사적으로 현재의 학생 혹은 과거의 학생들과 페이스 북 혹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소리주 교사연합이 자유 발언의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법안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교사들을 자극했다.

데이턴 공립학교의 한 학생의 부모 Kelly 크레이븐(Kelly Craven)은 “과제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교사들

과 대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크레이븐은 교사들에 대한 그러한 금지에 대해 그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 찬성하며 그 논쟁에 끼어들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메시지에서, 교황은 새로운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는 “위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친구 보다 더 많은 가상의 친구들을 갖게 되는 것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베네딕토는 최근 문서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수준에서도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상의 접촉이 대신할 수도, 대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연구가들은 성인의 60퍼센트가 소셜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92퍼센트 이상의 아이들이 소셜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주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새로운 금지령을 내렸다. 게다가, 학교 관계자들은 교사들의 학생들과의 소셜 네트

워크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이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입안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침례회 연맹(Southern Baptist Convention)의 소셜 미디어 전문가 크리스 포베스(Chris Forbes)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혁명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 증거는 최근 이집트와 중동에서 일어난 정치적 움직임이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데 소셜 미디어가 시사하는 바는 긍정적이 의미심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날 사회적 네트워크는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인터넷, 웹 대해 정통한(Tech Savvy)’ 세대를 대륙시킨다. 퓨리서치 센터(the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18세에서 33세의 성인들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들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보안이 문제가 되는 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서나 매일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신앙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소

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소셜 미디어는 복음주의적 아웃리치, 신자들을 위한 지지, 선교 전략과 기독교 진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웹로우업테크놀로지의 마케팅과 커뮤니티의 부회장 커티스 사이몬(Curtis Simmons)은 “소셜 네트워크 도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과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교사의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비평가들은 교사들을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의사소통 과정을 마련한다면, 금지령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칼빈 대학교(Calvin College)의 의사소통 기술과 과학 교수 퀴틴 쉴츠(Quentin Schultze)는 “인류는 본래부터 멀티미디어 생명체이다.”라며 “네트워크는 직접 접촉을 포함하여, 인쇄 매체, 전자 디지털 매체 등 모든 매체를 가로질러 여러 형태를 취한다.”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박용덕 목사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미국은 지금 러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될지 모르며, 마치 모래 위의 성과 같이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가장 큰 문제로 보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크게 사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가장 죄악시하는 동성애법들이 머리를 들고 올라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도덕적, 영적 타락과 더불어 각종 위상들과 사탄에 대한 경배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등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미 2000과 2008년, 주민발의안을 통해 저지하려던 동성애 법안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주 상원 의원인 Mark Leno에 의해 SB48이라는 법안으로 발의 되고, 상정되어 주 의회에서는 49대 25로 통과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민주당)이 서명하므로(2011년7월14일) 2012년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SB48 법안의 큰 문제점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역사에 관해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합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한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이 법안은 교육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이며, 이로써 모든 배경과 모든 분야 사람들의 공적이 미국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를 위한 진일보”라고 밝혔는데, 이 얼마나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 동성애를 거부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교사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금 기독교를 중심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이 법안을 저지하고자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월 말까지 유권자 등록된 시민권자들만 가능한 65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큰 난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에 우리 모두 발 벗고 나서서, 특히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심장을 뛰게 했던 LA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미국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 한국에 6.25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을 구하려 갔던 미군 중에 약 5만 명이 가까이 사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 뜨거운 믿음과 영성을 가진 한국 기독교인들을 미국에 보내 저들로 미국을 위해 부름 받게 하므로 미국을 살리고자 하신다며 그것이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6.25전쟁 동안 한국 땅을 밟은 미군은 총 178만 여명이었고, 그들 중 살아서 부모 품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45,116명, 온전한 몸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이군인만도 92,134명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미군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을 미국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SB48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든 한인 교회들과 목사님,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반드시 SB48법안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을 살리기 위한 기도운동으로 2011년 1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로즈 볼 스타디움(Rose Bowl Stadium)에서 계속 될 10만 명 기도운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리기는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을 살릴 영적 군사로 이 기도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6.25 한국 전쟁 때 미국에게 진 빛을 갚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 진주보석이 결혼 예물로서의 가치와 의미는?

### 한 알의 영롱한 진주는 어떻게 탄생할까



조개에 핵을 삼입한 후 진주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3-4년이 걸린다.

이렇게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진주 조개의 절반은 태풍이나 적조 현상,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죽고, 역경을 이기고 살아 남은 진주 조개

중에서도 양질의 진주가 나올 확률은 불과 20-30%에 지나지 않는다.

진주(Pearl)는 오랜 역사를 인류와 함께 하면서 눈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에 예전에는 일부 사람들이 결혼 예물로서의 기쁨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천년 대에 들어서는

결혼예물도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명실상부한 결혼예물로 진주보석도 자리매김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치를 점차 신부와 양가 부모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개가 한 알의 진주를 잉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참고 인내하듯 사랑의 완성을 아름답게 해주고 있는 귀한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진주가 모성과 같은 산고의 아픔을 견디어 내 듯이 태어났기에 말이다. 특히 갓 태어난 진주의 은은하고 영롱하게 퍼지는 그 빛깔이 신부의 결혼과 순결을 상징해주는 보석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는 다이아몬드와 함께 결혼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것이다. 흰 보석으로서의 입지가 이제는 결혼 예물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결혼보석으로서의 진주가 자리매김하면서 시중의 보석상들도 근년에 들어 진주보석이 예물로서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면서 매출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주 전문 고베펠 사 관계자는 지난 봄에 이어 올 가을에도 결혼 성수기를 맞이해 예물로서의 진주 보석 세트를 중심으로 특별히 준비했다면서 어느 해보다도 크게 매출이 일 것으로 내다 보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렌데일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 8일 (목)~9(금)일  
장소: 힐튼 호텔 Hilton Hotel (한국 마켓 맞은편)  
지하 몬트로스 룸 Montrose Room (Lowel Level)  
100 West Glenoaks Boulevard, Glendale, CA. 91202

#### [부에나파크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10일(토)  
장소: 홀리데이-인 Holiday Inn - Buena Park  
1층 가든 1룸 Garden 1 Room (1st Level)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 들께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CA LIC #0G67882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페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타올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피종진목사 초청 남가주한인 선교대회**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 피종진목사를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남가주한인선교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9월 16일(금) - 9월 17일(토) 오후 7시 30분  
2011년 9월 18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 풍성한교회 (박효우목사 시무) 213-503-3355  
29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 문의 : 총무 정요한목사 213-422-9191

**남가주한인목사회**



# 일 년에 한번씩 계판 만드는 교회

슬즈베리한인장로교회  
예전 교인 초청해 홈커밍 축제

슬즈베리한인장로교회(담임 김동영 목사)는 매년 노동절 연휴 홈커밍 축제를 열고 미 50개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초청한다. “이민자들의 영적 노산훈련소”를 자칭하는 슬즈베리한인교회는 많은 이민자들의 정착지로 각광받는 슬즈베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교인들을 일년에 한번씩 초청해, 교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다.

금년에도 9월 4일 홈커밍 축제를 연 슬즈베리한인교회에는 볼티모어 지역과, 아틀란타, 버지니아, 뉴욕으로 흩어진 식구 20명이 동참, 감사에 배와 은사자들과 이민선배들의 이야



슬즈베리한인장로교회(김동영 목사)는 매년 노동절 연휴 홈커밍 축제를 열고 미 50개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초청한다.

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홈커밍축제의 빠질 수 없는 하이 라이트, 2,700마리 메릴랜드 특산 꽃게로 여는 계판회는 단연 인기 만점이었다. 과거, 현재, 미래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은 내년에 다시 만날 영적 순례를 기억했다.

김동영 담임목사는 “메마르고 황량한 이민생활에서 찾아갈 고향이 있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홈커밍데이를 마친 교인들은 지역을 변화시키자는 사명을 다짐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새롭게 출발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슬즈베리한인장로교회는 “체사픽 대학(Chesapeake College)”과 협력해 한국인 만을 위한 무료 영어 강좌를 개설한다. 등록은 2011년 9월13일(화), 15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이다. 등록에는 2-3시간이 소요되고 영어 테스트를 통하여 반 배정을하게 된다. 수업은 9월 20일(화)부터 시작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고급반을 마치면 향후 직업교육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주소) 231 N. Division St. Salisbury, MD 21801  
전화) (410)860-2229

권나라 기자  
nrkwon@chdaily.com

## 뉴욕리폼드신학대학 · 대학원 개강 예배 드려



뉴욕리폼드신학대학 · 대학원이 개강 예배를 드리고 2011 가을학기를 시작했다.

뉴욕리폼드신학대학·대학원(학장 유상열 박사)이 9월 4일 오후 6시 2011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유상열 목사가 인도하는 가운데 조국환 박사가 ‘자기 부인(마 16:24)’ 설교를 전했다. 조국환 박사는 “본문은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며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다면 신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리폼드신학대학, 대학원

은 해외학생처장 최지도 목사에 게 명에 목회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예배 중에는 예장 합동(총신측) 미주 동부노회(노회장 강신욱) 목사 주관으로 김수경 전도사 강도사 인회식을 가졌다. 더세컨드라이프(The Second Life) 재단을 설립해 구제와 전도, 치유, 양육 사역을 하고 있다. 뉴욕리폼드신학대학·대학원은 9월 5-6일 저녁 6시 30분, 8일 오전 10시 특별세미나를 진행한다.

윤주이 기자

## 뉴욕청소년센터 사무총장 김현돈 목사 취임

김현태 목사 “신임 사무총장 후원해달라” 당부

청소년센터 사무총장 이취임 예배가 9월 6일 오후 8시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민병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방자각 목사는 마 9:9-13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공물이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의 죄를 제가 지겠습니다’라는 공물이었다”며 “청소년 센터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다. 사람을 만났던 주님처럼 공물의 마음을 갖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가자”고 당부했다.

김원기 목사(뉴욕교협회장)는 “제일 좋은 때 떠나는 김현태 목사님, 제일 좋은 때 오시는 김현돈 목사님 모두 축하한다. 청소년 센터가 새롭게 도약하고 뛰고 일이 많은 때다. 오늘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인 것을 믿고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사했다.

김현태 목사는 “준비한 이임사를 진실된 마음으로 읽겠다. 앞으로 제가 단 한마디도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무총장을 후원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동안 후원해 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하다. 청소년 센터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12년간 수 백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헌신하는 후원자, 동역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십자가를 넘기고 가는 것 같아 미안하다. 후원금을 많이 보내달라”고 예배에 참가한 이들에게 당부했다.

신임총장 김현돈 목사는 신앙 고백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날마다 배우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같이 일할 때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사단은 그 놀라운 잠재력을 알기에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한다.”며 하나가 되는 데 힘썼다는 의지를 표했다. 그는 전임 사무총장인 김현태 목사와 청빙위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 김현태 목사 이임사 요약 ◆  
후원해주신 교회, 선교부, 남녀선교회, 구역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후



뉴욕청소년센터 사무총장 이취임 예배가 6일 오후 8시 신광교회에서 열렸다.

원해주신 회사, 단체, foundatin, 기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개인들, 성탄절 후원자 분들, 가출 홀리스 셉터 빌딩 구입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소득층 세급보고를 통해 기부금을 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AT반을 통해 저렴한 수업료를 내주시고 공부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센터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거의 12년 동안 저는 적어도 수 백명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한 적어도 수 천명의 사람들로 부터 기부금을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센터 사무총장으로 12년 가까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헌신하는 후원자 분들, 신실한 동역자 분들, 충성스러운 직원들, 헌신하는 이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사무총장 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9월 6일  
김현태 목사 드림

윤주이 기자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속성 결혼신고 \$130 •가족초청\$190
- 영주권 수속 \$600 •이름변경\$290
- 시민권 수속 \$100 •공증 \$10

20년을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서류, 번역, 전과기록 정리  
주정부 이민번호 #CF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가고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 기독교인연합회 분과위원장 선임하고 체제 구체화

9월 조찬기도회 가져

워싱턴지구 예비회 기독교인연합회(회장 김용돈)는 최근 회장 김용돈 목사가 회칙에 준하여 4개 분과위원장을 선임하고, 신앙 분과에 이광수 장로, 홍보 분과에 이승현, 봉사분과에 윤희균, 그리고 친교분과에 강해순 씨를 위임해 체제를 갖췄다.

9월 2일 아침 7시 30분에 버지니아의 애난데일에 소재한 메시야장로교회(담임 단세영 목사)에서 조찬 기도회를 드린 단세영 목사에서 조찬 기도회로 시작해, 워싱턴지구총교회를 담당하는 김만홍 목사의 설교가 있

었다. 김 목사는 “무엇을 보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특별 합심기도회로 진행됐다. 기도회에는 1) 한국의 번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이광수 장로가 2) 국군 포로 및식방과 귀환을 위하여 박윤식 목사가 3) 세계평화와 복음선교를 위해서 한훈 목사가 기도를 인도하고, 친교를 위한 조찬을 나눴다.

다음 조찬 기도회는 같은 장소에서 10월 1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린다.

권나라 기자



조찬기도회 후 단체사진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고객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늘 고민합니다. 고객들의 참된 동반자로, 때로는 강직한 대변인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항소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위반)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제법변호사 협회 회장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영회법 변호사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주서부 법안회(가사/아) 협회 회장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임원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nsel, Brothens, 권무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및 유언 건 해결

#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손짓”

## [간증]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최윤미 자매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M52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선음악회에서 간증을 위해 강단에 오른 최윤미씨(33)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 아이를 둔 밝고 건강한 30대 초반 엄마의 모습이었다. 어떤 간증을 전할지 귀를 기울였던 청중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그녀에게 힘찬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갈 무렵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됐다. 임신기간 중 주변 사람들이 ‘임산부가 맞느냐’고 물을 정도로 너무나 건강했으며, 기형아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녀는 자신이 장애 아이를 둔 엄마가 될 거라고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 네 살 준영이는 당시 39주를 채우고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남들보다 한 뼘이나 더 큰 키와 장군같이 늠름한 손과 발을 가진 건강한 사내아이로 세상에 태어났다.

대부분의 가족이 그렇듯 모든 것이 평온한 가운데 갓 태어난 준영이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즈음, 뜻하지 않게 준영이는 출생 후 삼주가 지날 무렵 심한 고열을 했다. 그

저 가벼운 감기쯤으로 생각하고 찾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의 상황은 부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고, 준영이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을 앓게 됐다.

예후가 좋지 않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바로 다음날, 준영이는 몇 번의 무호흡과 함께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코마상태에 빠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갑자기 쓰나미 같이 밀려 온 터라, 그저 악몽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 악몽에서 깨어나라고 병원 비상구 복도에 앉아서 가슴에 멍이 들 만큼 제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빨리 이 악몽에서 깨어나라고... 하지만 그 것은 저희 부부가 감당해야할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생지육이나 나름이 없었습니다.”

그 후 2개월이 넘는 병원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전과는 다른 준영이었다. 뇌의 80퍼센트 이상의 손상으로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으며, 빨지 못하는 준영이에게 우유 30밀리리터를 먹이는데 2-3시간은 기본이었다. 눈의 구조



최윤미, 최윤미씨 준영, 현준 가족

는 정상이지만 뇌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인지하고 못해 눈을 뚫으나 볼 수 없었고, 뇌신경계 형성이 되기도 전에 뇌가 대부분 손상된 터라, 운동이나 인지 등 모든 방면에서 어려움

을 가지게 됐다. 담당 교수는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지낼 거라”는 말도 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세상에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준영이와 최윤미 씨 부부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다.

최 씨는 병실 화장실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면서 남편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나요? 왜 하필 나냐고?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나는 지금껏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고,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나냐고?...” 절규하며 따져 물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남편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난 더 이상 믿지 않을 거라던 그녀는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어려서부터 주위의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이종적인 행동에 상처를 받았던 그녀는 군대 종교병과에서 근무하던 남편을 따라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계속적으로 손짓을 보냈고 그녀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모시게 됐다.

최윤미씨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움켜질 수록 우리를 더욱더 옥죄게 하는 열려와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 새해가 되면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준영이 제발 목 좀 가누게 해주세요.” 이었지만 올해 새해 첫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우리 준영이를 온전히 믿고 맡기는 내려놓음의 믿음을 허락해 해달라는 것”으로 바뀌었을 만큼 그녀의 바람과 소망도 달라졌다.

최윤미씨는 요즘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서너 시간 잠을 잘 시간도 없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간호사라는 비전을 품고 있다. 최씨는 “하나님을 제가 지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즐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이런 제 삶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즐거움과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녀는 “저의 작은 간증으로 조금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어려울 때 신앙으로 든든한 후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seattle@chdaily.com

# 벼랑 끝에 세우셨던 하나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 [인터뷰] 2집 앨범 ‘미리암의 노래’ 출시한 CCM 사역자 김혜은 집사

“하나님께서 2집 앨범을 제작하는 내내 저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듯 했어요. 하루도 넘치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만나처럼 그날 필요한 만큼은 어김없이 채워주셨죠. 미리암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다를 건너자고 한 모세를 따라 갈 때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미리암의 노래]가 나왔어요.”

CCM 사역자 김혜은 집사가 얼마 전 2집 앨범 [미리암의 노래]를 출시했다. 1집 앨범 [now I know]에 이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만에 이전보다 더 깊어진 은혜와 사랑, 농익은 삶의 경험이 절절히 묻어나는 이번 앨범은 기획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 나와 본인은 물론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미 주류 음악계에서도 인정받는 바비 신 프로듀서와의 인연과 앨범 제작, 선곡부터 녹음, 마지막 한국에서의 작업까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도움, 소셜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펀드레이징까지... 지난 4개월은 그녀에게 하루 하루 천년 같은 기간이었다. 어쩌면 2집 앨범 [미리암의 노래]는 마치 모세가 매섭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등지고 지팡이를 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를 향해 들어올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부모하고 회귀적

인’ 도전의 결과물인지 모른다.

“앨범을 만들면서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다’고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앨범의 컨셉을 ‘물’로 잡고 2년 정도 제작과정을 예상했어요. 시작할 때만해도 주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죠.”

한번은 당장 내일 몇 천불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은 없고, 새벽 3시에 페이스북에 ‘하나님...’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곧 울리는 전화벨.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가 서부에서 뜬금없이 전화를 한 것이다. 갑작스러웠지만 이런 저런 안부를 묻다가 끊기 직전 ‘그런데 왜 새벽에 깨어 있어?’라고 물었고, 상황을 설명하니 후배 왈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화 하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필요한 금액만큼 채워졌다.

이야기 보파리를 풀어가던 김혜은 집사는 “바다가 열릴까 안 열릴까 고민했을 미리암처럼 더도 덜도 아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서, 당신 하나만 바라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바다가 열려서 소고를 들고 기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웃음)”라고 감사했던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 ‘미리암

의 노래’를 비롯해 5살 딸 지현이와 함께 부른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지현이에게)’, ‘내 사랑을 주께’, ‘내려주소서’, ‘I’ll Be There For You’, ‘목마른 영혼’, ‘독수리같이’, ‘나의 구원자’,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의 은혜라’ 총 열 곡이 수록돼 있다.

앨범 출시와 함께 동남부 및 서부투어를 기획하고 있는 김혜은 집사는 또 다른 일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문화사역 ‘꿈’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10월 초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꿈’은 김혜은 집사가 몇 년간 섬겨온 ‘그 레이스 보컬 아카데미’를 확장해 노

래가 좋은 모든 이들을 위한 ‘오픈 마이크로폰’, 매주 찬양모임, 언젠가는 입을 가질 수 있는 작은 교실, 밴드, 연극, 합창 연습장소, 댄스, 피아노, 노래 연습 등 ‘문화’를 공통분모로 갖고 있다면 말 그대로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는 ‘문화사역의 장(場)’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생일 파티, 베이비샤워, 돌잔치 등 작은 공간을 발리고 싶은 이들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인터리어하고 있다. 장소제공과 간단한 스낵은 무료로 제공되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헌금을 받아 운영할 방침이다.

앨범 및 사역에 대한 문의 404-643-2511, leehaeun@gmail.com.  
박현희 기자



2집 앨범 [미리암의 노래]를 출시한 김혜은 집사

##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9월 12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 www.chungycpa.com )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 10개 구절로 만든 휴지 성경... 평신도 교회의 12 원칙

한 미국 목회자가, 기독교 공동체가 완전히 지하에 숨어 있는 북한으로부터 배운, 12개의 비관습적이며, 심지어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교회 건립 원칙을 발표했다.

북한 지하 교인들과 10년간 함께 일해 온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는, 미국 교회가 하는 방식은 북한의 신자들을 죽게 하거나, 투옥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숨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인들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서울의 복음주의 교회의 폴리 목사는 "서구나 남한 같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제자 훈련은, 종교의 자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정한 건물과 특별히 훈련된 전임 사역자와 풍부한 자원들을 통해 훈련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하지만 박해받는 교회, 특히 북한의 교회 안에는 이것들이 부재하다."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밝혀진 자는 재판 없이 무기한 강제 노동에 처해지며, 몇몇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공개 사형에 처해진다.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 지하 교회의 3명의 지도자들이 처형되었으며, 20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경찰은 평안도 평성시 구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하여 종교적 활동을 위해 그곳에 모여 있던 23명의 신자들 모두를 체포했다. 20명의 신자는 요덕의 악명 높은 강제 노동 수용소 15호에 보내졌다. 그리고 2009년, AP 통신사는 33세 살의 기독교 여성인 리현옥이 성경 보급과 외국의 스파이 혐의로 북한에서 공

개 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의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일하는 오픈 도어스 선교회는 9년 동안 북한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로 분류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약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북한 기독교인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폴리를 놀라게 했다. 이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 건물도, 봉급을 받는 목회자도, 성경도 없다. 그는 팜플릿을 통해, "문자 그대로 서구의 우리가 제자 훈련에 있어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전혀 없다."고 썼다.

메시지들을 나눈다. 폴리는 "보통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9개의 성경을 갖고 있다. 4년 반 동안 기독교인이었던 한 북한인은 10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휴지로 만들어진 성경을 기억을 통해 만들었다."고 썼다.

폴리에 의해 규정된 평신도 교회에서, 지체들은 성경의 한 구절과 찬송 하나를 매주 암송한다. 교회는 24명 혹은 그 이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크기이다. 교회가 커지면, 작은 그룹들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아마도 평신도 교회의 가장 놀라운 원칙은 입회를 쉽지 않게 한다는 점이다.

폴리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교회의 목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빨리 교회 안으로 안내를 받도록, 교회 문턱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며, 따라서 제자훈련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지하교회의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의 사람들이 정부 소속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은 박해받는 교회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다."

폴리는 "낮은 문턱은 그들에게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오늘날 신자들의 펠로우십 안으로 안내받고 있는가에 대한 현저한 대조를 보여준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W 복음주의 교회는 공식적으로 2011년 1월에 시작되었다. 폴리는 미국, 중국, 남한의 교회들을 포함하여, 평신도 교회 조직의 지체 수는 수백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폴리는 "나는 북한의 박해받는 교회 환경으로부터 창

## ■ 평신도 교회의 12 원칙 ■

1. 입회를 쉽게 하지 않는다.
2. 주일예배를 대예배로 정하지 않는다.
3. 지체들을 전문가가 아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훈련한다.
4. 받고, 기억하고, 찬송과 성경을 전해준다.
5. 이미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만난다.
6. 사람들을 살아있는 성경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7.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8. 매주 각 지체들의 성장을 측정한다.
9. 교회 일을 할 때, 아이들도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하라.
10. 지역 교회를 이끌 평신도 목사 자원자를 이용하라
11. 십일조를 하라, 그러나 평신도 교회에 하지 마라.
12. 전도하라, 길에서 양식을 받으라.

조한 모델의 특이성은 그것이 가장 안에 뿌리는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예배를 위해 그들의 가족 밖에서 모일 기회를 가진 신자들이 드물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제의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대 예배는(the main service)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아니라, 대 예배는 가정 안에서의 매일 밤 드리는 예배이다. 우리는 서구 교회가 간과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장 위대한, 리더를 기르는 방법을 발견했으며, 그 방법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전통적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자녀들도 역시 그것을 배울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 지하 교인들, 美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

폴리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성경이 아마추어나 평신도들을 지원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립비로서 훈련받지 않았던 예수와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해받는 교회 같이, 평신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교인들처럼 그것에 의지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들은 지체들에게 성경 구절 암송을 통해 "살아있는 성경"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모든 지체들은 주일 예배 설교를 교대로 하며, 설교자는 암송한 구절들로 설교한다.

또한 이러한 교회 구조는 주일이 주된 예배(main service)가 아님을 강조한다. 개개의 가족들은 교회로 간주되며, 매일 예배를 드리고, 리더십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뀌며, 노래를 부르고 암송한



미가의 인기 상품 전복 삼계탕. 당기, 황기, 대추, 찹쌀, 인삼 등 건강 약재들을 우려낸 국물에 살아있는 전복을 넣어 요리한 삼계탕은 올 여름 최고 인기 상품이었다.

피타이저로 나오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도 미가의 인기 비결에서 빼놓으면 섭섭하다. 남편을 따라 이민 온

# “삼계탕에 살아있는 전복을...” 최고만 드리고 싶어요

### [크리스천 기업탐방] 페어팩스카운티 한인 식당 '미가(美家)'

#### 직원과 한 마음된 사장 꿈꾼다

'이열치열(以熱治熱)'로 무더위를 식혀줄 몸보신 음식을 찾는 한인들이 북적였던 여름의 무더위가 한 풀 꺾였다. 페어팩스카운티 중심가에 위치한 한인 식당 '미가(美家)'에서 선보인 전복을 넣은 삼계탕은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면서 인기 품목으로 급부상, 하루에 최고 50그릇도 팔리는 등 손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개업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지만, 정갈한 음식 솜씨로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고객에게도 그 손맛이 알려진 한인 식당 '미가'의 객선이(Sunny Kwak) 대표를 만나 봤다. 요즘 객 대표를 만나는 지인들은 열이면 열 "성공했다"며 칭찬이다. 식당 관련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있어 시작한 식당 일은 이제 1년 반 지났지만, 단골 손님들도 꽤 생기고 한국의 정갈한 음식 솜씨에 매료된 외국인 손님들도 전체의 30~40%를 차지할 정도다. 처음엔 가게 위치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을 망설였지만, 불경기에 위협을 감수하고 구입한 식당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가게를 구입하게 하셨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객 대표는 크리스천이다. 그래서인지 "늘 손님들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고 싶다"며 "재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쓰려고 하고, 반찬이나 메뉴에 있는 음식도 주방에서 조금 바쁘더라도 미리 만들어두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바로 요리해 내놓는다.

가정적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드시고 가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또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목돈을 들여 약을 사다 대대적인 정기 위생관리를 빼놓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여러가지 과일과 야채를 넣어 다린 육수로 만든 육수 불고기 전문점인 '미가'이지만, 올 여름에는 스테미너용 고급 재료인 '전복'을 넣어 삼계탕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바다의 용왕이 먹는다는 '살아있는 전복'을 넣어 끓여 삼계탕에 있는 약간의 닭뼈 새가 없어지고 시원한 맛을 낸다고 한다. 사시사철 예

물설은 미국 땅에서 힘든 생활로 눈물 짓던 지난 날도 있었지만, 객 대표의 얼굴에는 세파에 찌들은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막막한 이민 초기의 어려움은 현재 직원들의 마음을 세심히 챙기는 '넉넉' 사장님의 기쁨을 제공했다. 성가대,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같은 크고 작은 교회일을 꼬박 꼬박 챙기던 그것이지만 식당 일을 시작하고 부터는 아무래도 쉽지 않다고 했다.

"아쉽죠... 그래도 주일예배만큼은 챙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늘 노력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겸손히 말하는 객 대표에게도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바로 몇년 전 한국에 들어갔을 때 전도한 가족이다. 고부 갈등이 심하던 어머니와 오빠 가족을 전도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한 것.

아들이 아파 갔도 해보고 각종 불찰을 찾아다니던 올케에게 "교회 다녀야 한다"고 권민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 후로 신장이 아픈 조카가 나왔고, 전도된 지 6개월 만에 15명을 전도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가족으로 변모했다. 오랫동안 불교를 믿던 어머니도 오빠 가족과의 화목을 위해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3번 성경을 일독하고 주야로 성경구절을 외우는 등 열심으로 회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한다.

"아직 제 믿음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손님들에게도 가족처럼 대하고 싶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인 식당 '미가'는 매일 오전 10시30분부

#### 매상 오르면 직원들 나눠줄 것

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주소는 4070 Jer-mantown Road #5, Fairfax, VA 22030. 문의는 703-6991-3606으로 하면 된다. 권나라 기자



객선이 대표



##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 2011년 봄·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1.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2.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 정규 학위 인준 기관

-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 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3.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4.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5.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② Lee University
  - ③ Oral Roberts University
6.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② Indian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alifornia 학위  · 매달학생회비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P.M)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M.Div)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 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64		
	상담학 Ph. D.	64		

# “기독교인들, 9.11 영웅들처럼 억압받는 이들 구해야”



9.11 테러 10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 당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시민들의 구조에 나선 9.11 영웅들의 정신도 또다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같은 정신을 본받아 기독교인들도 오늘날 종교적 억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대표가 촉구했다.

미국 오픈도어즈 대표 칼 모엘러 박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

들이 있다. 그러나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는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했다”며 “9.11 이후 미국이 겪은 고통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받고 있는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1억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박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박해의 75%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박해 중에서 테러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모엘러 박사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행동해야 한다”며 “9.11 테러 직후 수많은 소방관, 경찰관, 긴급구조원들이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딪쳐’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박해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기도와 후원이 있다. 모엘러 박사는 이 두 가지 일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기독교인들이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고통을 간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 안의 고통을 간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 9.11 테러 후 10년 뉴욕 시민들의 신앙 변화는?

9.11 테러 이후 10년간 이뤄진 뉴욕 시민들의 신앙 변화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신앙은 테러 이전보다 현재 더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기록되는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바나 그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매년 3,400여 명의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온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으레 큰 위기를 겪은 지역 주민들의 신앙심이 높아지는 현상이 9.11 테러 직후 뉴욕에서도 일어났다. 당시 뉴욕 전역의 교회들과 다른 종교 시설들로 극심한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고자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일들이 보도되곤 했다.

그러나 바나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 몇 달 만에 테러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2003년까지 이같은 경향이 지속됐다.

그러나 변화는 2004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 이 때부터 현재까지 신앙의 영향이 뉴욕 시민들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테러 전과 2003년까지 31%에 불과했던 교회 출석률은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 현재까지 46%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경을 읽는 이들은 29%에서 35%로, 기도를 하는 이들은 17%에서 24%가 됐

다. 또한 스스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이들도 20%에서 32%로 늘었으며, 반대로 교회와 접촉이 없는 이들(the unchurched)의 비율은 43%에서 34%로 줄었다.

설문 조사를 이끈 데이빗 커너먼 대표는 한편, 이같은 변화는 9.11 테러뿐 아니라 그 후에 이어졌던 월스트리트 위기와, 경제 악화 등 미국의 여러 위기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록 9.11 테러 직후 높아졌던 신앙에 대한 관심이 2003년까지 실질적인 신앙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는 위기 가운데 갖게 된 신앙심이 굳건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기독교인 위기 상담 전문가인 포커스온더패밀리 페트리샤 존슨 디렉터 역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하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를 극복하는 데 있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신앙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는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일단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신앙은 더욱 강해지고 교회 활동과 신앙의 실천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현정 기자 hjson@chtoday.co.kr

# 美 무슬림, “미국에 크게 만족... 방향성도 낙관적”

### 3분의 2 이상 “이슬람 국가보다 미국이 더 좋아”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9.11 이후 반이슬람 감정으로 인한 인종차별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공동체가 미국 사회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문제 연구단체 퓨 포럼(the Pew Forum)에 의해 진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이슬람교도들은 미국의 현 상태에 다른 미국인들에 비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의 관습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길 원한다고 했다.

설문을 받은 3분의 2는 미국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보다 더 좋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2001년 이래로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로 지내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변했다. 4분의 1은 수상한 존재로 취급되거나,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거나, 공황의 보안 검사에 의해 추종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와 달리 전체의 37퍼센트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자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

운 수는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퓨는 4월 14일에서 6월 22일 사이에 1,033명의 미국 이슬람교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는 영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우르두 어로 진행됐다.

퓨의 수석 연구원 그렉 스미스(Greg Smith)는 조사자의 3분의 2가 이주자들이었으며, 이들은 77개국을 대표한다. 나머지 3분의 1은 개종자들 뿐 아니라 미국 이슬람교도 2세와 3세들을 포함한다.

2009년의 텍사스에서 일어난 Ft. Hood의 총기 사건과 최근 좌절된 테러리스트 공격에 의해 본국의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불안이 거세져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직 4퍼센트의 미국 이슬람교도들만이 그들의 공동체 내 극단주의에 대한 지원이 증가했다고 믿고 있으며, 34퍼센트는 그들의 공동체 내에 극단주의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미국 이슬람교도들은 일반 대중 보다 미국의 전통적인 이상을 더 추구하는 편이다. 일례로, 전체 미국인의 62퍼센트가 열심히 일하면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이들은 4분의 3이 이와 같이 믿는다.

엘에이에 근거를 둔 이슬람 공공 문제 위원회(Muslim Public Affairs Council)의 대표 살람 알마라야티(Salam Al-Marayati)는 설문 조사 결과는 그의 공동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 이슬람교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뿌리를 버리지 않고서도 미국 사회와

조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마라야티는 “나는 이슬람교도로서 우리가 미국에 살 수 있는 축복을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위대함을 보며, 미국을 우리의 고향으로 여긴다.”고 했다.

주디 한 기자



## 미국 텍사스에 ‘자동차 극장형’ 교회 등장

### 장로교 목사의 파격...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대상



텍사스주에 자동차 극장형 교회가 세워져 화제다. 마스터장로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이들을 선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이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자동차 극장형 교회가 세워져 화제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예배는 시작된다. 예배 장소가 차 안이라는 것만 빼면, 찬양, 기도, 설교 모두 기존 교회 형식 그대로다. 파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이 같은 시

도는 마스터장로교회 담임 데이빗 레이 목사의 아이디어다.

레이 목사는 CNN 협력채 WFAA과의 인터뷰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자동차 극장형 예배를 열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나의 시도를 허락하실 것”이라며 “예수님의 사역도 대부분 야외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 문제는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 루카스 지역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을 빌려 드리는 이 교회는, 장로교단의 데이빗 레이 목사가 3번째로 세운 야외 교회로 “하늘 아래 성전(Sanctuary under the sky)”이라고 명명했다. 오전 9시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 후 오전 10시 30분에는 예배당 내에서 정식 예배를 드린다.

최근 주일예배를 드린 한 교인은 “대형교회보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히며 자동차 극장식 교회를 지지했다.

권나라 기자

# LA 오토덴트

## LA AUTODENT GRAND OPEN!

오토  
덴트

&

바디  
리페어

| 덴트란, 페인트 손상없이 찌그러진 부위를 판금, 도색없이 퍼내는 방법을 덴트라 합니다.

→

**덴트의 원리**  
덴트의 원리는 철판의 탄성-찌그러진 철판은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작업입니다.

**덴트의 필요성**  
덴트는 인접 철판면을 비갈쪽으로 정밀하게 밀어내는 복원작업으로 난이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금속판을 분해 및 탈착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원상태로 복구시켜 드립니다. 이 방법은 도색을 하지 않는 장점과 더불어 차량의 가치 하락 또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흡집제거/찌그러짐/범퍼복원/코팅  
리스반납시,기분좋은가격으로~  
딱! 하루만에 완벽한 복원가능

LA오토덴트에서 새차를 만들어 가세요

Tel. 323-735-3180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세라노)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아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Youth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교동,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아(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교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 예배) 2부 11시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교동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4부 예배: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터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서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EM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5: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cc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45-4090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00(토)  
 1818 S. Western Ave., suite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교동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홍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점오후 12:30(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2,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정책에 자신 있어... 종교간의 마찰은 없을 것”

2일 기독교자유민주당(가칭) 창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는 기독교자유민주당의 정책과 강령,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와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전 목사는 이번 창당이 오랜 준비와 공감대 형성을 거쳐 이뤄진 것이며, 자신이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타 종교와 마찰을 일으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자들의 주요 질문과 전광훈 목사의 답변.



전광훈 목사가 기독교자유민주당 창당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왜 굳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 하는가.**  
 “4년 전 조용기 목사님과 故 김준곤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나라와 사회가 어려우니 기독교당을 만들어서 대처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에게는 청교도영성훈련원 조직이 있고 장경동 목사에게는 대중적 영향력이 있으니 둘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 때는 성경적·정치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교계 원로들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목사가 왜 정치를 하느냐면서 욕하는 글이 인터넷에 수없이 올라갔다.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교계 원로들이 잘못된 일을 맡겼겠나 싶어 끝까지 힘껏 밀어붙였다.”

그 결과 총선에서 약 45만 표(2.59%)를 얻었다. 이는 그 당시 두 가지 큰 약조건 속에서 이룬 것이다. 첫째는 창당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선거를 치렀고, 둘째는 모 정당의 압박으로 245개 지역구 대표들의 출마를 취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기독교인들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봐도 좋은 것이다. 2.5%도 득표하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기에 선관위에서 해체시키는데, 통일교 가정당은 해체됐지만 기독교당은 당당히 살아남았다.”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 정당의 활동이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겠나.**  
 “제가 시정 앞에서 자주 애국집회를 하는

번째 계명부터는 모든 종교가 공감한다. 기독교자유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첫번째부터 네번째 계명은 강조하지 않겠다. 그 외에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두 공감하지 않겠다. 그렇게 가면 종교간 마찰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자유민주당이라는 종교적 이름 붙인 건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은 정책 이념이 더 앞선다. 대한민국에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이념에 동의하는

관위에 제출하지 않아 합당이 무효라며 저더러 당원도 아니니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지금도 그 당은 존재하고 몇몇 분들이 돌아오라고 하지만 가지 않을 것이다.”

4년 전 45만 표를 얻은 것은 누가 봐도 청교도영성훈련원 조직을 가지고 만든 표이고, 이제 5만 표만 더 만들면 국회의원 2명을 배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기독교 정당을 위해 전

나고 묻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자유민주당’이다. 경제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우선하고, 어느 사회든 정신적인 내공이 무너지면 소망이 없다. 다 예수 믿고 술 담배만 안 해도 돈이 남는다.”

4년 전에는 순종하는 미덕 때문에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공부도 많이 했고 정치적 소신도 분명히 있다. 제가 제시한 교육법 등은 다른 정당과 비교해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다.”

## 기독교자유민주당 출사표 던진 전광훈 목사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 것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참여하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정책과 이념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당을 지지하면 된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자료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제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아니다. 최소한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려면 먼저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한 뒤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비판이야말로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45만의 지지를 받은 당당한 정당이다. 몇 년 전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며 나라와 교회를 바로세우는 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기독교 창당을 준비해 왔다.”

**-4년 전 약 45만 표의 지지를 받은 것은 다른 기독교인(현재 기독교를 표방한 정당은 3~4개나 된다), 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 하는가.**

“사실 이전 부끄러운 일이다. 당시 선거가 끝난 뒤 제가 활동했던 정당은 많은 지지를 받아서 살아남았는데, 김준곤 목사님의 지시로 다른 기독교 정당과 합당선언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당 사무실에 가니 서류를 선

혀 봉사나 희생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느닷없이 기독교당을 하겠다고 한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서서 않다. 최소한 목사라면 어느 정도의 윤리의식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남이 다 지은 집에 돈도 안 내고 입주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원로들의 명령이 아니라 저의 정치적·신앙적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총선에 나설 것이다.”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일률적 무료 분배 사회주의적 복지주의 배격 ▲초, 중, 고등, 대학교 5.3.4.4. 학제 교육 도입 ▲대학 졸업자에게 창업자금 무상 대여 방안 강구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교체 할당제 도입 ▲미국의 동맹관계 재점검 보완 ▲수쿠르법, 동성연애법, 자연공원법 적극 지지 및 반대 등이다. 수쿠르법의 경우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와 사회를 망치는 법이다. 그래서 영국은 다 갖아버렸다.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방어할 것이다.”

향락문화도 너무 심각하다. 기본적 삶의 행복 위한 향락이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양주소비량이 세계 1위다. 이것만 줄여도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떻게 양주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목사님에 대한 비난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제가 직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하려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한 말들이 불의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린다. 저는 풍자적 설교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정해진 대상과 공간에서 오랜 교감을 나눈 이들을 상대로 말을 하다보면, 그 상황을 모르는 이들이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은밀한 대화를 그대로 중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논란이 있을 뒤 제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 중에 제 말을 듣고 오해한 분들이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했지만 하나도 없었다.”

**-기독교당 단일화 계획은 있는가. 또 어떻게 지역구 후보들을 선발할 것인가.**

“단일화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교계 어르신들이 나서주셔야 한다. 후보는 먼저 245개 지역구 출마 지원자를 받은 뒤, 내년 4월까지 기독교 정치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거쳐, 국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훌륭한 후보들을 선발하려 한다.”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지금은 변화산에서 내려갈 것을 결단할 때다”

예장 합동 설립 1백주년 기념 총회세계선교대회(GMS) 2011 세계선교대회가 2일 오전 11시 열린 파송예배를 끝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총회선교, 세계교회와 함께’를 주제로 안산동산교회(담임 김인중 목사)에서 열린 이번 세계선교대회에는 전세계 100개국에 파송된 국내 선교사 3백여명을 비롯해 국내외 관계자 4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재호 준비위원장(동산교회)이 인도한 파송예배에서는 이기창 부총회장(전주북문교회)이 설교했다. 이기창 목사는 ‘성령과 선교(행 1:4-8)’를 제목으로 참석한 선교사들에게 “선교는 하나님의 사명이자 수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하고, 그러므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므로 그 수고



이기창 부총회장이 파송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를 알아드려야 하고, 우리는 충성 된 종이 돼서 그분의 갈증을 풀어

## 세계선교대회, 4박 5일간 일정 마무리

드려야 한다”고 권면했다. 선교대회 장소를 제공한 김인중 목사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목사는 “축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달려가면 그곳에서 많은 열매 맺히게 될 줄 믿는다”며 “먼 곳까지 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GMS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하귀호 이사장은 낭독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계 최대 장로교단으로 성장한 우리 교단의 미래를 계획하는 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고 선언문 취지를 밝혔다.

예배에 앞선 ‘축제와 협력의 장’에서 말씀을 전한 옥성석 목사(충정교회)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는 그곳이 무척 좋다고 생각해서 현실에 안주하려 했지만, ‘일어나라’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산 아래로 내려왔다”며 “그런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변함없이 산 아래 있는 이들과 동고동락했는데, 그가 가야할 곳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며칠간 꿈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 여기를 떠나는 것이 꿈이자 비전이 되어야 하고, 이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배는 안기영 목사의 축도와 하귀호 대회장(GMS 이사장)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이후에는 GMS 이사회 총회가 개최됐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까?

자동차의 모든 문제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 워싱턴 바디샵 으로 연락하세요.

30년 경력으로 정상가의 50%만 받습니다.



1800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워싱턴길 버몬과 노르만디 사이)

323.732.9693

# ‘목사님의 운세’ ? 교회언론회, 포털사에 시정 요청

### 인물 소개의 ‘별자리’와 ‘띠’가 운세와 연결

**인물정보** 프로필 수정요청 내 홈페이지



**이승만** 건 대통령  
출생-사망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 - 1965년 7월 19일  
성별 남성  
별자리 양자리  
띠 돼지띠  
가족 배우자 프란체스카  
종교 기독교  
관련정보 역대 한국대통령

**인물정보** 프로필 수정요청 내 홈페이지



**한경직** 목사  
출생-사망 1902년 12월 29일 (평안남도 평원) - 2000년 4월 19일  
성별 남성  
별자리 염소자리  
띠 호랑이띠

한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별자리와 띠를 더블클릭하면 검색하기가 나오고, 이를 다시 클릭하면 운세로 연결된다.

주요 인터넷 포털사의 “인물정보”에 보면 간략한 약력 소개와 함께 ‘띠’와 ‘별자리’가 나온다. 그런데 이런 ‘띠’와 ‘별자리’는 ‘운세’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한국교회언론회가 지적했다.

현재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는 <네이버>와 <다음>이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음은 인물을 검색하면, ‘띠’와 ‘별자리’가 나오고 이를 ‘더블 클릭’하면 ‘검색하기’가 나온다. 이를 다시 클릭하면 ‘띠별 운세’와 ‘별자리 운세’와 연결되게 되어 있다. 네이버는 인물정보에서 하단에 “인물정보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띠’와 ‘별자리’가 나오고 이것도 ‘운세’ 정보로 링크되어 있다.

교회언론회는 “이렇게 중요 인물의 약력을 운세와 연결하는 것은 목회자와 심지어 사망한 인물에 까지 연결되도록 하고 있어, 고인에 대한 심각한 결례와, 성경에서 미신과 우상숭배를 엄하게 금하고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모욕이 되고 있다”며 “성경에서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점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신 18:10-11), ‘네가 좃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신 18:14)고 말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달 31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 바, <다음>에서는 필요시 본인이 요청하면 삭제해 주겠다는 것과, 이를 한국교회언론회를 통해서 요청해 오면 일괄적으로 삭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왔다.

교회언론회는 이에 “한국 기독교계의 지도자 중 인터넷 포털사의 ‘인물’에 소개된 분이 있으면, 본회에 신고해 주기 바람”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아직 <네이버>에서는 답변이 없으나, 기독교계의 단호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개교회엔 손해지만...”



2일 기자회견을 가진 미래목회포럼 관계자들. 좌측부터 순서대로 이랜드 시목 박계문 목사, 전주서문교회 김승연 목사, 성은교회 김인환 목사, 서광교회 이상대 목사, 오산평화교회 최석원 목사, 오산장로교회 박병철 목사

구제역과 폭우, 게다가 얽힌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태풍 피해가 지..... 그 어느 때보다 농·어촌 시골교회들이 피해한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래목회포럼(대표회장 김인환 목사)이 올 추석에도 변함없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벌인다.

“농·어촌 시골교회, 개척교회에 생기를! 격려를!”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 캠페인은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제5차로 진행된다. 한국교회 중 10%에 해당하는 1백명 이상 중·대형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본 교회에 출석하기보다 시골 농·어촌 고향교회

목사(전주 서문교회)는 “이 운동을 시작하고부터는 명절이 다가오면 주보에 캠페인에 대한 광고를 한다”며 “참여했던 교인들 모두가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운동이 더욱 파급되고 보편화되면 한다”고 했다.

이상대 목사는 “한국교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공생해야 하고, 그러려면 큰교회들이 작은교회들을 도와줘야 한다”며 “예전에는 명절에도 출석 교인이 10% 정도밖에 줄지 않았는데, 이 운동을 하고나서부터는 50% 가까이 줄어서 개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 미래목회포럼, 추석 맞아 한국교회 공생 위한 제안

와 주변 개척교회를 방문해 일선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운동이다. 해당 기간에는 본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기를 강요하기보다 미리 주보 광고를 통해 차량 운행 중 공예배도 농·어촌 고향교회나 주변 개척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의 헌금을 드릴 것을 권한다.

이 캠페인은 이미 지난 네 차례에 걸쳐 1천여 교회가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그간 진행했던 운동에 대한 평가와 보고도 이어졌다.

김인환 목사는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작은교회들에 대한 정책이나 배려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 운동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겉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의 제안자인 김승연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중·대형교회의 중직자들도 신앙의 뿌리는 시골의 농·어촌교회이거나 작은교회”라며 “새벽기도회나 금요철야 등 공예배도 농·어촌 고향교회나 주변 개척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의 헌금을 드릴 것을 권한다.”

이 캠페인은 이미 지난 네 차례에 걸쳐 1천여 교회가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그간 진행했던 운동에 대한 평가와 보고도 이어졌다.

김진영 기자

## 북인련 “탈북자들, 영사관에서 3년째 감금생활”

### 기다리다 지쳐 자살 기도까지... 인권위에 제소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이하 북인련)에서 탈북 동포들을 구출하지 않는 외교통상부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동포 가족 증언 및 단체대표 발언, 성명서 낭독, 진정서 접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중 북경 한국영사관에서 한국행을 위해 수년간 대기하던 탈북자들이 지난 7월을 전후해 집단 이탈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탈북자들은 1-3년간 영사관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행을 기다리던 이들이 자진해 영사관을 빠져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북인련은 “중국 공안의 감시와 체포를 피해 대한민국 공관을 찾았

지만, 외교부는 이들을 장기간 방치하고 안전한 조처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히 탈북자들의 중국 내 외교공관 체류생활이 너무 끔찍하고 지독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4월 “중국 내 한국영사관 4곳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는 30명이 넘지만 4년을 대기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다림에 지쳐 자살을

기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인련은 “지난 2007년과 2009년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에서 계속 기각했다”며 “외교관들의 직무유기를 덮은 채 탈북자를 살려내는 구호활동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직무유기 사례들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전했다.

이대웅 기자

## 이영훈 목사 “교회 두 쪽 난다는 보도, 사실과 무관”



이영훈 목사

### 장로수련회 강의에서 “불협화음 나온 데 대해 회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2일 “교회가 두 쪽 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목사는 강연 태백에서 열린 제9회 장로수련회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강의에서 “다만 일부 불협화음이 나온 데 대해 교회 지도자로서 잘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밝혔

다. 이목사는 “교회 내 고소고발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도자인 내가 교회를 잘못 섬겨서 그런 것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자세로 철저히 회개하고 있다”며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고 죽으면 하나가 되고, 장로님들은 사랑으

로 하나가 돼야 하며 절대 나눠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하든 분열과 다툼, 갈등을 부추기게 돼 있다”며 “제직을 세우는 것은 성도의 영적 리더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라는 뜻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끌어안고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원장 정서영 목사**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http://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정우성 칼럼

# 사막에 강을, 광야에 길을 만드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정우성  
남가주광영교회 목사

러시아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믿음으로 땅을 밟으며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를 탐방했습니다. 후방에서 중보하는 기도가 저희들은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여러분들과 맡긴 책임들을 완전하게 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전방에서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자본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이때에 복음전파가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동석선교

사님 부부와 최광호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단기 선교팀은 사명을 잘 감당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를 탐방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니라>(사 43:18-21)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해도 사막에서 물이 없어 오아시스를 찾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저주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비방거리들을 영광과 칭송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들을 영생의 자식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임

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임니다. 자녀들이 잘못 가면 부모들이 그 책임을 지고 부모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함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임니다.

저는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시는 러시아를 보았습니다. 복음의 물결이 파도치는 것처럼 강하게 불어 올 것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우뚝 세워져 그들에게도 예수 복음의 생명을 받고 천국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능 하다면 , 또 할 수 만 있다면 단기선교에 많이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말이 필요 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세계선교를 꿈꾸는 주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주호 칼럼

# [신앙논단]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조주호  
리폼드대학교 대학원 총장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모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중심의 유일신 신앙관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의로운 섬김의 신앙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의미 하는 것 같습니다.

타리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그 곳을 탈출시킬 것인가를 생각 하게 되겠지요. 내게 소유된 명분과 직분 그리고 많은 소유물들이 존재의 의미에서 소유의 가치를 향해 이웃으로 펼쳐져 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새로운 길 열어주는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행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면 사랑을 하기 위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삶의 후원자로 믿음을 삶의 재산으로 기도를 삶의 방법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부여한 직분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허락하신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맡긴 직무에 게으른 사람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지극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바라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최소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과 교회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리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많은 시간을 거리와 모임에 빼앗기고 실상 먼저 할 일을 뒤로 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사악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을 느끼는 사람과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사람과의 삶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보냄받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서있는 곳에서는 열정과 희생으로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을 두려워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의로운 삶을 지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군을 향해 앞에서 가로막힌 장애물을 열어주기 위해 앞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일어나 이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삶의 길이 막히고 넘실대는 흥해 바다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안에 스스로를 낮추고 간구와 도구의 소리를 모아 힘든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니까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의 울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엄격한 사명과 직무에 대한 행동을 해야 하니까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의 울

김영길 칼럼

# 묻어둔 한 달란트



김영길  
감사한인교회 목사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세종들을 불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금액은 주인의 전체 재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겼던 자기 재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맡았던 자들은 모두 감절로 그 재산을 늘린 수고에 대하여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둔 일 때문에 책망을 듣고 그 재산도 빼앗기게 됩니다.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왜 그 돈을 묻어 두었는지에 관해서 현란한 말로 변명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은 주인에 대한 완곡한 비난입니다.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무서운 주인의 돈을 내가 함부로 잘못 다루다가 흑사라도 손에 보는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제 있는 그대로 돌려준 것만 해도 잘한 일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대답입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일하기 싫었다면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를 증식시켰어야 했다 고 책망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백만원에 해당하는 큰돈입니다. 주인이 이 돈을 맡길 때에는 당연히 더 많은 재산으

로 증식시켜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종들을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처음의 두 종들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했지만 마지막 종은 외면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집을 비운 오랜 기간에 무의 도식했습니다. 종이 일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요행으로 생각했습니다. 변화도 없었고 발전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들에 대하여 무책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책망을 들을 때에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하고 마음으로 반발했습니다.

달란트는 우리의 존재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모든 기회들과 재료들과 관계들과 가능성을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살았다는 말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묻어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초진 무료! T213-380-0853

고태형 칼럼

흥미로운 광경



고 태 형  
선한목자장로교회 목사

최근에 국내에서 비행기 여행을 하다가 비행장 두 군데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비행장엔 공중전화 박스의 전화기를 모두 빼고 뚜껑을 덮어 씌어 놓았습니다. 다른 비행장엔 공중전화 박스는 있으나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이었습니...

위해서 앞사람이 전화 끊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서있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25년 전 일도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국 신학교 기숙사에 살 때 공중전화기 기숙사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중전화에도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공중전화로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연락을 위해 한국의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기숙사 복도에 있는 그 공중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숙사 같은 층에 사는 미국 학생들이 공중전화를 통해 저희에게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저희 방에 와서 노크를 하고 전화 왔다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와서 이렇게 공중전화를 우리 전화(?)로 사용하면서 1년 반 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성경공부 지도를 하던 한 유학생이 어느 날 저희 기숙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사는 데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았습니다. 웬일로 저희 집

다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참석해야 할 모임을 알리기 위해 찾아왔다는 겁니다.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유학생이기에 절박하며 산다고 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불편을 끼치는 것이 되어 바로 전화 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공항에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막아놓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저마다 스마트폰에다가, 아이 패드로 무장을 하고 어디에서나 음성으로, 문자 메시지로, 이메일로, 인터넷을 통해서 24/7 온 세상과 소통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경험한 일입니다. 시간을 다투며 인터넷으로 서로 연락을 하며 컴퓨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 마침 필자가 탄 비행기에 비행 중에 인터넷이 가능한 비행기라는 사인이 붙어 있었습니...

10분 정도를 주고 사면 비행 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던지요. 삼만 피트 높이라는 공중에서 인터넷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작업을 마친 후 그 위력에 감탄을 하며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언제 어디서나 서로 연락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퍼져나가며 전화비에 데이터 수신비가 추가로 더 얹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살기 위해 그만한 댓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와 같은 것과 비교될 수 없이 훨씬 더 엄청나게 좋고 유익한 능력의 의사소통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도라는 장비입니다. 현대의 통신 장비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고

밧게 만듭니다.

핸드폰, 아이폰, 스마트 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의 도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모르나 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락할 수 있도록 그 댓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만 하면 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응답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경험되는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싶습니다. 24/7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어느 통신장비보다 더 많이, 아니 항상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인수 칼럼

서경훈 칼럼

너무 깨끗해서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조 인 수  
씨나사이드교회 목사

어릴 적 한국에서의 삶의 질은 한마디로 불결했습니다. 단지 선교나 비전트립을 가서 후진국들의 삶을 보면 옛날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불결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이 신기합니다. 겨울에는 늘 감기가 떠나질 않았지만, 친구들과 가운데 어떤 친구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기도 했지만, 그런 불결한 환경에서 이만큼 자란 것을 보면 인간은 불결하면 불결한대로 환경에 적응하도록 창조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한다면 오늘의 환경은 너무나 청결합니다. 오히려 너무 청결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청결을 따집니다.

마치 모두가 무균실에서 살기를 원하는 듯 합니다. 무균실은 면역력이 전혀 없는 중환자에게 일시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곳인데 현대인들은 자기 집이 그러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율가닉이 아니면 안먹으려 합니다. 모든 먹거리는 원산지를 따지고 양질의 먹거리만을 먹으려고 고집합니다. 물도 좋은 물만 찾아 마십니다. 좋은 물이 아니면 H2O만 들어있는 물(교회물)이라도 먹으려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이 자신도 모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불결해도 안되지만 너무 깨끗한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주님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자고 했습니...



서 경 훈  
함께가는교회 목사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2천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놓고 참 많이 힘들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우 생각했던 것이 '위대한 사람'(聖人) 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네 사람을 선정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즉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대우합니다. 그 정도 대우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써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칭찬을 듣는다면 당연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 중에 누가 자기는

정말 성인의 칭호를 받을 만하다고 하겠어요? 4대 성인의 칭호를 받는 공자님이? 당연히 자기는 성인의 칭호를 받을 만하다고 하겠어요? 다들 겸손히 사양하겠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가 배출한 위대한 네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대우하면서 우리가 공자님을 대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 정도로 존경하고 그 뜻을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C. S. Lewis가 분류했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이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사실 이 두 경우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예수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거짓말을 했든지, 그러면 예수는 희대의 사기꾼이고요, 혹시 본인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예수는 정신병자일 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주장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오직 이 선택만이 남습니다. 내가 거부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내가 취할 행동은 돌을 던져 그에게 던지는 것이고, 그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어쭙해도 않게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인 사람에게 4대 성인이 뭘 할입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따르면 밤새 헛수고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후 예수의 발 아래 구부러졌습니다. 자기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오직 하나, 그분 앞에 무릎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고 나서 취했던 행동도 동일합니다. (요한 9:38)

예수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돌을 집어든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쭙해도 않게 하나님을 성인이라고, 그것도 네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런 웃기는 코미디는 집어 치워야 합니다. 돌을 들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든지, 우리가 취할 행동은 이 둘밖에 없습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 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4월 29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속성과정 학생모집 (악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만자, 재취업 기술교육

**NEW HOPE CONTRACTION & PAINTING**

APARTMENT RESIDENTIAL COMMERCIAL

- INSIDE REMODELING REPAIR PAINTING
- 전기, 플러밍, 목수, 모든 HANDYMAN WORK
- OVER 20년 경력, 모든 일 WARRANTY 해드립니다.

Tel. 310-756-9511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 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삼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Select color - 기독교일보 애독자 특별할인 -

- 이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 마켓용 Gondolas
-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질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855-5687 / (213)200-3050

**금 최고가 현금매입 샅니다**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노드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였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땀 뚫어!**

-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 나무 뿌리로 지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 싱크대, 욕조, 변기 등
- ▶ 노후된 파이프를 등 파이프로 교체
-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 각종 Faucets, 디스포설,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욕실, 벽, 벽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관한 모든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앵콜!

진주 전문업체 고베펄이 엘에이, 글렌데일, 부에나파크에서 펼치는

앵콜!

# 지상최대 진주보석쇼

## 장기불황타개!!! 긴급제안3가지 진주보석비드 무조건 80% OFF



reg. \$499

**\$99**

진주 비드 목걸이  
(7mm - 7.5mm)

reg. \$1499

**\$259**

진주 비드 두줄 목걸이  
(7mm - 7.5mm)

reg. \$1599

**\$299**

진주 비드 목걸이  
(8mm - 8.5mm)

앵콜!

앵콜!

### BIG3 스페셜 천연진주 비드 특가품목



▲ 2011년 신상품  
서울강남세공 장식 두줄목걸이

## 2011년 신제품 진주보석 최고 80% 세일 "진주보석 신제품등 3500여점 전시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3천 5백여점 전시 특가판매



▲ 행운과 부부금슬을 좋게 한다는  
바다의 보석 홍산호



### 귀족들이 즐겨했고 사모님들이 사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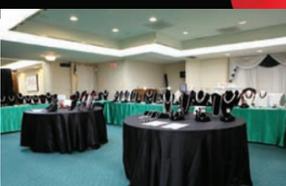
사파이어와 루비, 에메랄드 등  
유색 보석 50%에서 70%까지 특별 세일  
"유색보석도 고베펄이 만들면 다릅니다"



DISCOVER MasterCard VISA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행사 특성상 특전 인기 품목은 품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사 장소에서는 제품의 수리 및 A/S를 하지 않습니다. 수리 및 A/S요청은 고베펄 본사로  
문의해주시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행사 기간 중 도매 관련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도매관련문의는 고베펄 도매사업부  
(본 광고 참조)문의 제주시청 바랍니다.



Kobe Pearl LAS VEGAS 고베펄 진주 보석쇼 행사 일정 (kobepearl.com 블로그참조)

안내전화 213.703.5187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 6일 (화)부터 7 (수)까지, 2일간  
장소: 로텍스 호텔 Rotex Hotel (그래머시 와 올림픽)  
2층 뱅킷룸 Banquet Room (2nd Leve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글렌데일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 8일 (목)부터 9 (금)까지, 2일간  
장소: 힐튼 호텔 Hilton Hotel (한국마켓 맞은편)  
지하 몬트로스 룸 Montrose Room (Lowel Level)  
100 West Glenoaks Boulevard, Glendale, CA. 91202

[부에나파크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 10일 (토)부터 1일간  
장소: 홀리데이-인 Holiday Inn - Buena Park  
1층 가든 1룸 Garden 1 Room (1st Level)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DEC 20-23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 Higher Calling: 2

## 더 높은 부르심

제4차

### 미주한인청년학생선교대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실  
 것이며(사55:6).  
 살리실 것이며(아5:4),  
 구하는 것을 찾게해 주실것입니다 (마7:7)  
 청년들이여!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십시오.  
 “더 높은 부르심:2”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손인식목사  
베델한인교회

작년 샌디에고 GKYM 대회에 참가한 3천명의 2세 젊은이들을 보는 순간, 미래를 보는 눈이 확 열렸습니다. 여호수아 없는 모세는 끝장난 것이고, 2세없는 1세들의 교회는 껌질뿐입니다. 올해 GKYM대회는 5000명이 몰려올 것입니다!



임현수목사  
토론토큰빛교회

2011 GKYM대회는 마지막 세대에 세계청년 선교 폭발의 핵이 될 것입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이런 부흥의 중심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에 한번 오는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바랍니다.

- 대회일정 : 2011년 12월 20일(화) - 23일(금)
- 대회장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5000명
- 등록 : 당일등록없음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 Early Bird : 11월 7일까지 \$160 (USD)
- (단체등록시 목회자 할인혜택)
- 1차 : 11월 30일까지 \$180 (USD)
- 2차 : 12월 11일까지 \$200 (USD)
- 3차 : 12월 20일까지 \$240 (USD)

등록방법 : [www.gkymwest.org](http://www.gkymwest.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Dave Gibbons  
Newsong Church



Mike MacIntosh  
Horizon Christian Fellowship



Bayless Conley  
Answers with Bayless Conley



Jaeson Ma  
Campus Church Networks



Francis Chan  
Founder of Cornerstone Church



Yongkyu Lee  
Missionary to Mongolia



Chanho Ahn  
Missionary to Kenya



Yonghee Lee  
Esther Prayer Movement



Cheolho Han  
Mission Korea Partners



**GKYM VISION HEADQUARTERS**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389.5222  
 FAX : 213.389.5200  
 EMAIL : [gkym2011@gmail.com](mailto:gkym2011@gmail.com)

GKYM Vision 참가교회 : Abundant Life / AKPC / ANC / Bakersfield / Bill Graham Center / Bridge Community Church / BSBC / Capitola Central / CCCC / Chinese Christian Church / Choong Hyun Mission / Choong Shin Church / Church Everyday / Church of Dreambuild / Church of Joy / Church of Philippi / Church of Southland / CRM / Disciple Church / El Centro Korean / ESSC / Fairhaven Bible Chapel / FHC / First Korean Baptist / G.C.J.C. / GFBC / GMC / God's Church / Grace Church / Gracious Ark Church / Granada Hills Church / Hae Orum / Hanwoory Church / Harvest Church / Harvest rock Church / Hawaii Hope Baptist / Hebron Church / Highland Cornerstone / Hillcrest CRC / Hillside of LACPC / Holy / Immanuel Church / Irvine Onnuri Church / Irvine Open Church / JGM / JHOUSE / Joy Center / Kingdom Harvest / KUMCSD / LA Hanmi Church / LA Jesus Grace / Laguna Hills KUMC / LANGC / LAODC / LA남서울 은혜교회 / Life Spring / CMACUHK / Living Water / Livingstones Church / LJGC / LLCC / LMUMC / Lord's Light Church / Lubbok Baptist, Kairos / Mannam Presbyterian / Mi Ju One Way Church / Nasung Wesleyan / New Life Mission / New Life Oasis Church / New Life Vision Church / NSD of KMC / OC YoungNak Church / Open Heaven Church / Peniel Church / Podowon Baptist Church / Rock Harbor / Salvation Army / SD Hope Church / SD Sarang Church / Seoul Baptist Church / SUITA Church / Sungkwang Church / TGSC / Tian Yin Church / TKPC / Tucson True Light Church / TVPC / UMC / UPC, Cerritos Baptist / West LA은누리교회 / Westminster Baptist / Wonderful Church / World Mission / World Saints Church / WPCA / 감브리 믿음교회 / 감브리교회 / 감브리새생명교회 / 과테말라 한인교회 / 나성 서남교회 / 남가주 / 남가주 꿈이 있는교회 / 남가주동성교회 / 드림교회 / 미주평안교회 / 밀알장로교회 / 벨리 연합감리교회 / 뽕나무 빌라델비아교회 / 베이커스필드 한인 침례교회 / 배론루지 한인 침례교회 / 사랑의 교회 / 새누리교회 / 새문안교회 / 새순교회 / 새한교회 / 샌디에고 주님의교회 / 샌디에고한빛교회 / 서부장로교회 / 세계아가페 선교교회 / 세인트루이스 한인 소망교회 / 아름다운교회 / 아름다운동성교회 / 알함브라교회 / 연합감리교회 / 메살채플(Bethel Korean Church) / 오렌지 한인교회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 은누리 Sunland / 은누리 베이커스필드 / 주리교회 / 은성교회 / 은혜의 빛 장로교회 / 직은자 교회 / 조선족 선교교회 / 주사랑 / 주사랑교회 / 은빛교회 / 부산 참빛교회 / 트라이밸리 장로교회 / 트라이밸리 한인장로교회 / 평화교회 / 피닉스 장로교회 / 하나교회 / 하늘샘교회 /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 / 한사랑교회 / 호산나

주관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 KCCCUS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 GAP(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 남가주목사회 /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 KOSTA / 남선협 / 흰돌선교회 / 미주복음방송 / 미주기독교방송 / CGNTV / CTS / KCMUSA  
 한국일보 / 크리스천헤럴드 / 미주크리스찬신문 / 크리스찬뉴스위크 / 크리스찬투데이 / 기독교일보



[www.gkymwest.org](http://www.gkymwest.org)